

마스크 생산 격려하고 수도요금 깎아주고

'코로나19' 퇴치 총력전 펼치는 지자체 현장

전남과 전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단체장은 직접 나서 마스크 생산업체를 위로 방문하고, 담화문을 발표해 격려심을 되새겼다. 공무원과 지역사회는 온정의 손길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마스크 생산 독려하고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 29일 마스크 생산업체인 ㈜화진산업을 위로 방문했다.

앞서 ㈜화진산업을 중소기업부와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화진산업을 공영소秉에 공급하는 마스크 100만개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노마진 판매한다. 지난 2013년 설립한 회사는 2018년 스마트공장을 구축, 직원 15명이 1일 마스크 10만 장을 생산하고 있다. 벤처 창업 대통령상(2017년)과 전남 유망중소기업(2019~2022년)으로 선정됐다.

유 군수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 지역 유망기업인 화진산업을 마스크 공급에 앞장서고 있어 자

고 있다. 발열검사장 운영 이들 만에 200만원 상당의 위문물품이 각계각층에서 전달돼 방역 일선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로했다. 또 지난 27일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작해 현재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진도 군내면 주민자치회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시민을 돕기 위해 진도 청정 농산물인 봄동 80상자를 대구 남구에 전달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수도로 감면 혜택을 준다. 대상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익산시는 일단 3월 부과분에 대해 수도로 30%를 깎아 주며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추가 감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이·미용실, 목욕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1000여 곳에 소독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약



지난 29일 장성지역 마스크 제조업체 ㈜화진산업을 위로방문한 유두석 장성군수가 화진산업 직원들과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서자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코로나19 원천 차단을 위해 진도 관문인 진도대교 인근 녹진휴게소 발열검사소에서 진도군 공무원들이 모든 차량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원광대 퇴직 직원 봉사팀이 대학 기숙사에 격리 중인 유학생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봉사 나섰다. <원광대 제공>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3045만원을 기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지사장 정찬)는 장흥군 부산면에 '손 소독제' 1000개(201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댐주변 사업으로 주민복지·주민자치 활동, 경로당 운영, 체육문화 활동, 지역현안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광대 퇴직 직원들은 대학 기숙사에 격리 중인 유학생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봉사 나섰다.

정년퇴임을 했거나 3월부터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직원 8명은 자가 격리 유학생들을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스스로 봉사팀을 꾸려 하루 세차례씩 도시락을 각 실에 전달하고, 식후 회수까지 맡아 처리하고 있다. 또 학생 발열 체크나 불편사항 점검 등 14일의 자가 격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는 등 다른 지원업무도 뒷받침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전북 취재본부



장성군이 '엘로우시티'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황룡강 경관 조성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 황룡강변 '황금빛'으로 살아난다

전문·체계적 '수목 관리' 경관 개선... '엘로우시티' 극대화

장성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 황룡강의 경관 조성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목 관리에 나섰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은 지난해 홍길동축제와 봄꽃을 결합한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와 100만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개최 장소다.

장성군은 올해 열릴 홍길동무 꽃길 축제와 노란꽃잔치의 성공 개최를 위해 황미르랜드-제2황룡교-행복마을-취안천에 걸쳐 식재된 1만여 주의 수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개나리, 산수유, 황금느릅, 황금회

화 등 '엘로우시티 장성'의 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란색 수종 관리에 힘쓰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고사목 제거와 비료주기, 가지치기를 완료했으며, 오는 봄·여름에는 병해충 방제와 풀베기, 관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민들의 여가문화 공간인 황룡강 일원의 수목을 전문적으로 가꾸어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황룡강을 만들 것"이라며 "군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천 경관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순창군, '인구증대·가족친화 직장문화 만들기' 앞장

순창군은 최근 지역 유관기관 5곳과 '인구증대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만들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등이다.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만들기 위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순창군은 협약 기관의 인

구교육과 순창군 바로알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방안 모색,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협약 기관들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운동에 동참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33세의 지역내 혼인 신고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신청 대상 나이를 만 39세에서 만 49세로 연장하는 등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 대기환경 개선 5억 들여 조림사업 펼친다

정읍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조림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조림사업에 나섰다.

정읍시는 질 좋은 목재 생산·공급을 위한 경제림 110ha,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5ha,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5ha 규모로 조림사업을 펼친다. 조림목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조림지도'를 적극 활용해 기능에 맞는 수종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사유림의 산주 의견을 수용해 선정기로 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조림 수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기능이 높은 큰 나무로 선정한

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